
‘WEF 금융경쟁력 평가지표 개선’ 관련 WEF와의 협의 결과

2016. 3.

금융경제 연구부

I. WEF 출장 일정

- 일 정 : '16. 3. 9(목) ~ '16. 3. 11(토)
- 방문자 : 금융경제연구부 구자현 부연구위원, 금융위 서재홍 국제협력관, 금융위 정종식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, 은행연합회 박영상 기획팀장
- WEF 면담
 - 일 시 : '16. 3.10(금) 15시~16시 30분
 - 장 소 : WEF 본사(스위스 제네바 소재)
 - 면담자 : Magaritha Drzeniek(금융경쟁력 평가 Head) 외 경쟁력 부서 3인, Justin Reed(아태 담당 Head), 이영옥(한국 담당 과장)

II. 면담내용

1. 문제제기 및 건의사항

- 140개국 대상의 WEF 국가경쟁력 평가지표는 여타 국가경쟁력 평가 지표 대비 우리나라의 현 위상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사용

⇒ 다만, 최근 평가결과의 객관성 결여에 대한 문제제기*로 평가결과의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을 설명하고, 다음과 같은 평가 개선 사항을 제안

* 금융부문 경쟁력 순위 : 르완다 28위, 프랑스 29위

- ①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WEF가 '12년까지 발간한 Global Financial Development Report를 재발간하거나, 현 평가에 계량 지표를 추가(또는 전환)해 줄 것을 건의

② 설문조사 결과는 급간 차이가 적어 분별력이 낮아지므로 순위 발표가 아닌 유사 그룹만을 발표하는 방안을 제시

③ 현 설문방식을 지속해야 할 경우, 응답자에게 관련 지표를 제시* 하거나, 국가간 상대비교로 전환하는 방안, 부문별로 각각 평가자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추가 제안

* 각 국가별 응답자의 특성(높은 기대수준, 강한 비판성향 등)에 따라 답변이 편향될 수 있음

** 일부 문항은 현 설문대상 구성상 답변이 부적합하여 평가의 적정성을 저해 (예. 기성 기업인에게 벤처창업자금 조달의 용이성에 대해 설문)

2. WEF 측 입장

□ 한국 정부가 제기한 설문중심 금융경쟁력 평가의 한계에 대해 이미 내부적으로도 문제를 인식하여 대안을 검토중에 있음.

* 르완다 보다 낮은 프랑스, 우간다 보다 낮은 한국 등 인식과 평가간 괴리에 대해 자신들도 방법론 상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

① 지표 객관화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지표를 포함하여 추가 지표로 검토*하고 있음(예. NPL 비율등)

* 현재 금융부문 계량지표는 총 8개 지표 중 법적권리지수 1개(12.5%)이나 향후 정량/정성지표간 비율을 6:4정도로 높일 예정

- 다만, 개별 국가별 자료 입수 가능성을 감안할 때 평가 대상국가 수가 축소되는 부담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계량지표를 확대하기는 곤란

* 객관적 지표 사용율이 60% 이상이고 2012년까지 발간된 Global Financial Development Report의 재발간 여부에 대해서도 WEF의 인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용이하지 않다고 응답

- 지표개선 작업의 완료 시기에 질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작업이 될 것이라 답변(향후 1~2년내 개선가능성은 낮음)

※ WEF 내부에서도 지역담당 부서는 국가간 비교가능성의 저하 등으로 WEF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를 지속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

② WEF도 평가순위 자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, 순위 발표 자체를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(마케팅 전략으로 이해됨)

- 한국 정부도 평가 해석시 국가간 순위보다는 금융에 대한 기업인의 체감정도와 정책 개선소요 식별에 이용하도록 권고*

* 평가 순위는 국가간 금융발전 순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기 보다는, 각 국가의 기업인이 금융을 바라보는 인식의 순위라는 입장

③ 여타 대안도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한 측면

- 응답자에게 계량지표를 제시하는 방안은 계량지표 추가와 동일하게 지표 입수가능성의 문제가 있음
- WEF의 평가 목적은 국가간 비교가 아닌 각 국가 기업인의 인식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설문 문항을 타국대비 상대비교로 전환하거나 부문별 평가자를 달리하는 방안도 수용곤란

⇒ 다만, 한국 정부의 방문을 통한 문제제기에 대해 감사하며, 한국 정부의 금융개혁 추진 노력 등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에 별도로 언급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제시

3. WEF의 KDI에 대한 감사 및 한국 정부 앞 요청

- ☐ WEF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 조사 협력기관(Parter Institution)인 KDI에 감사
 -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설문대상자 선정, 설문지 배포 등 다양한 단계를 거치는 작업으로 협력 기관인 KDI에 대단히 감사
- ☐ 또한 WEF의 도약을 위해 금융경쟁력 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준 데 대해서도 KDI에 고마움을 표시
 - WEF는 금융경쟁력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KDI가 연구를 수행했다고 전해들었으며 WEF 내부에서도 문제인식을 공유
 - 특히 최근 스위스 정부로부터 WEF가 국제기구로서의 인정을 받은 만큼 WEF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
- ☐ 한편 WEF는 그동안 기업부문 대상에서 ‘글로벌 아젠다’ 로의 의제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KDI 및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요청
 - WEF 아태국장은 WEF는 금융부문의 핀테크, 금융포용(financial inclusion)*, 금융안정(financial stability)을 글로벌 아젠다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
 - 이러한 부문에 대해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WEF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희망